

[보도자료]

독립영화의 현실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제작 시도**  
**독립영화의 색다른 도전 <뉴타운컬처파티> 제작발표회**

제작발표회 [Let's go 뉴타운컬처 Party]
일시 : 4월 16일(토) 19:00 장소 : 두리반 프로그램 : 트레일러 공개 감독/스텝 인사 회원 발언_홍세화, 이덕우, 임창재 외 (총 6명) (*발언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디뮤지션 한밤, 단편선, 밤섬해적단 공연
연락_이상욱 프로듀서 010-5364-9885 홈페이지_ <a href="http://ntcp.kr/">http://ntcp.kr/</a> 이미지_ <a href="http://ntcp.kr/category/영상%20%26%20이미지">http://ntcp.kr/category/영상%20%26%20이미지</a>

두리반과 인디밴드를 담은 독립다큐멘터리 <뉴타운컬처파티>의 제작발표회가 열린다. 오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는 홍대 앞 두리반 야외 무대. 제작발표회 후에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한밤, 단편선 등이 출연하는 공연도 예정되어있다.

소설가 유채림은 아내의 우물 두리반을 지키기 위해 펜을 놓아야만 했다. 두리반에 모여든 일군의 인디 뮤지션들은 두리반에서 노래하던 와중에 자신들의 처지를 자각하고, 독립을 넘어선 자립을 꿈꾸게 되고,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만들기에 이른다. 불안과 불안이 만나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뉴타운컬처파티>는 올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통상의 독립 영화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사회적 제작’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컬처파티>는 **사회적 제작**이라는 독특한 제작 방식을 만들어진다. 사회적 제작에 공감 하는 개인과 단체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제작비를 조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정식 공개 1년 후 공개 라이선스로 전환, 영리적 이용과 비영리적 이용을 가리지 않고 영화를 사회에 환원한다. 영화의 수익은 1) 독립영화 제작지원금 출연 20%, 2) 인권, 철거, 인디 음악에 사회적 기부 30%, 3) 스텝과 음악 런닝 개런티 50%로 분배**한다. 한편 한편의 성공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독립 영화 제작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영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 성격을 반영하고자 하는 고민을 결함시킨 것. 게다가 스텝들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다.

얼마 전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은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지만 영화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일명 ‘최고의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게다가 독립 영화는 상업 영화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나날이 줄고 있고, 그 성격 또한 지나친 상업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독립영화는 <혜화,동> 같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대다수 독립 영화인들은 생계와 작품 제작비를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으며, 어렵게 만든 영화를 걸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타운컬처파티>의 '사회적 제작'은 얼마 안되는 정부 지원금 이외에는 제작비 조달을 가난한 독립 영화인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나아가 개별 작품의 성공을 넘어 독립영화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대 기업은 돈을 벌지만 창작자들은 굶주리는 현실에서 창작자와 수용자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여기에 제작 스텝과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까지 고민하고 있다.

**영화를 함께 제작, 배급, 홍보할 제작위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홍세화, 우석훈씨와 같은 저술가 영화 감독 변영주, 윤성호, 배우 명계남, 독립영화 제작자 김일권 씨 등 영화인들, 이성규 독립PD, 시인 송경동, 인권활동가 박래군, 시민운동진영의 이태호, 하승창 등 각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 회사원, 변호사, 일반 시민,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단체 회원으로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진보네트워킹센터, 정보공유연대, 문화연대, 푸른영상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독립'이란 자유가 한껏 담겨 있는 단어지만, 그 자유 속엔 물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는 구조화된 '빈곤'도 함께 담겨 있는 게 한국 Indie Culture 현실이다. 다큐멘터리 <뉴타운컬처파티>의 '사회적 제작'은 이런 현실을 극복할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독립 영화인들 스스로의 노력이다. 이 새로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제작'이라는 문제의식 속에 녹아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뉴타운컬처파티>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 다큐멘터리 <뉴타운컬처파티> 소개

### [작품 개요]

제 목 : 뉴타운컬처파티  
장 르 : 음악 다큐멘터리  
런닝 타임 : 100분 내외  
포 맷 : HD, 16:9  
제 작 비 : 65,000,000원 (순제작비)  
제작 기간 : 2010년 2월~2011년 8월  
제 작 : 이달투  
제작 지원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 공 : <뉴타운컬처파티> 제작위원회  
감 독 : 정용택  
조 연 출 : 박다함, 박지현  
촬 영 : 정용택, 정세현  
기획 / PD : 이상욱

### [기획의도]

흥대 인디밴드들이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에서 대규모로 소비되고 있다. 가난하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그들은 인디영화에서부터 상업 영화와 드라마까지 인기 아이템이다. 그런데... 과연 그뿐일까?

인디음악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쯤이야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달빛요정의 죽음 앞에서 옷깃을 여미지만,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인디음악만이 아니다. 최고은씨의 죽음. 그러나 변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열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창조적 에너지지만, 그만큼 손쉽게 소비당하는 것도 없다. 젊은 인디씬들은 공연료 한 푼 받지 못하고 클럽에서 노래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지만 클럽 역시 오늘내일 하는 처지라는 것을 그들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거대 미디어기업들이 모든 것을 지배한 세상. 그러니까... 어쩌라고?

여기 일군의 젊은 인디씬들이 있다. 철거 위기에 처한 칼국수 집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들의 처지 역시 다를 것 없다는 것을 깨달은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남다른 시도를 해보고자 들이대는 친구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가지. “계속해서 음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생존.

음악 영화가 흘러넘치는 이때, 다큐멘터리 <뉴타운컬처파티>는 쥐뿔도 없는 녀석들의 무도한 도전을 따라가며 도대체 음악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시대에 예술가로 존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 한다. 어처구니없는 녀석들의 시골법적인 공연과 정신없는 무대

뒤 편, 그리고 신나는 음악 사이에 숨겨진 인디씬 각자의 삶의 풍경을 담아내며...

## [시놉시스]

홍대 칼국수집 두리반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다. 두리반의 사장이자, 소설가 유채림의 아내인 안종녀는 말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철판을 뜯고 농성을 시작한다. 두리반에서 철거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껏 보지 못한 문화적 투쟁. 수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예술을 무기로 두리반과 함께한다. 이때, 일군의 홍대 인디 밴드들이 철거민을 돕기 위해 두리반에 나타난다.

철거민들을 돕기 위해 나선 인디밴드들, 그러나 그들은 곧 깨닫는다. 공연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인디음악의 중흥기에 홍대에서 밀려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철거민과 다를 바 없음을. 두리반에서 <뉴타운컬처파티>라는 대규모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후 그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만들기로 한다.

그러나 쟁이들의 조직 건설이 쉬울 리 없다. 노이즈 음악부터 포크까지. 각양각색의 무지선들이 모인 자립음악생산자조합 준비모임은 좌충우돌을 반복하고, 밴드들은 공연과 생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간다. 과연 이들은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건설할 수 있을까? 거대 자본에 지배된 미디어 시스템 안에서 인디밴드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 이들은 과연 음악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는 한걸까?

한편, 두리반 투쟁 때문에 소설 집필을 중단해야만 했던 작가 유채림. 그는 과연 언제쯤 글을 마칠 수 있을까? 아니, 다시 펜을 들 수는 있을까? 두리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사막의 우물 두리반에서 시작된 예술가들의 도전. 쥐뿔도 없으면서 세상에다 시비를 걸겠다는 인디밴드들의 정신 사나운 <자립음악생산자조합 건설기>. <뉴타운컬처파티>는 예술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예술가로 살고 싶은 예술가들의 고투를 젊은 인디 밴드들의 골통을 뒤흔드는 음악 속에 버무린 본격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다.